

태국 김봉국 박미영 선교사 사역 소개

먼저, 밴쿠버 귀한 광림교회와 더불어 태국 선교 사역을 동역하게 되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2000년부터 선교사로 사역했고, 2024년부터 태국 사역과 SEED 캐나다 대표사역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섬기고 있는 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사역은 '태국교회 개척' 사역입니다. 저희는 지난 2019년에 남녀 대학생 기숙사와 더불어 힘치윗마이(새생명)라는 태국교회를 개척하여 현재 매주 40명 정도의 청년 대학생들이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개척한 타위에스씨 기술 고등학교와 2020년에 시작된 깐짜나 피섹 기술고등학교 캠퍼스 셀모임을 매주 화요일에 연합으로 가지고 있고 매주 2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와 오후 성경공부 외에 주중 셀그룹이 연령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5월에 연합수련회와 2월과 7월에 전도집회, 11월에 리트릿, 12월 성탄절 전도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사역은 2015년부터 섬겨온 현지 신학교(링리앙) 선교학 강의 사역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치앙라이는 태국, 미얀마, 라오스 세 국가가 접해있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링리앙 신학교에는 태국과 라오스, 그리고 미얀마로부터 온 32 명의 신학생들이 성경을 배우며 하나님 나라 사역자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교육언어도 중국어와 태국어 2 개국어를 사용하고 있고, 매년마다 10 명 가량의 졸업생들이 배출되어 태국 복음화뿐만 아니라 인도차이나 선교를 위해 귀하게 드러지고 있습니다. 저는 2학년부터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교의 성경적 기초', '선교의 역사', '선교와 문화', '선교의 전략' 이렇게 네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학 강의를 통해 신학생들이 졸업 후에 선교적인 교회를 목양하는 사역자로 드러지고 인도차이나를 위한 선교사 자원들로 드러질 수 있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사역은 2016년부터 시작한 태국 목회자 훈련 사역입니다. 교회사역에 있어서 담임목회자의 영성과 리더십은 교회사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제대로 된 신학수업을 받지 못한 채 힘든 목회현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현지 목회자들을 도우려고 'grow up together' 라는 목회자 코칭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코칭사역에 참여하는 10명의 지역 목회자들이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요 친구관계로 발전하고 있고, 이 사역을 통해 목회자 가정과 교회가 더욱 건강해지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을 세우는 공동체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2025년에는 새롭게 치앙라이 아카족 목회자와 교회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양육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목회자 코칭에 참여하는 목회자들과 더불어 매주 금요일 오전 10-12시까지 기도모임으로 모이고 있고 2026년 7월에 성경 세미나와 11월에 양육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역은 2024년부터 시작된 SEED 선교회 캐나다 대표 사역입니다. 현재 태국 현지 사역과 선교회 본부사역을 맡아 태국과 여러 나라를 오가며 SEED 캐나다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캐나다에 있는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선교동원 사역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지역교회들을 깨우는 사역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밴쿠버 광림교회에서 송민호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선교적 공동체 세미나를 가졌고, 제 5차 선교사 대회를 통해 지난 5년을 전략적으로 평가하고 다음 4년을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6년에는 캄보디아로 선교사 1가정을 파송할 계획이고 토론토와 밴쿠버 지역 교회들과 협력하여 선교학교를 통해 선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한인 교회가 선교적인 공동체로 세워질수 있도록 동역할 것입니다.

